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2. 7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역대상 · 마태복음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 Contents

8	1과 새로운 계명
16	매일성경묵상 마태복음 1장 ~ 마태복음 6장
24	2과 자살에서 구원으로
32	매일성경묵상 마태복음 7장 ~ 마태복음 12장
40	3과 복음 펴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48	매일성경묵상 역대상 11장 ~ 역대상 16장
56	4과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64	매일성경묵상 역대상 17장 ~ 역대상 22장
72	5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
80	매일성경묵상 역대상 23장 ~ 역대상 24장

『중현의 만나』는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정년부 GBS를 돕기 위해 중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July 2012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제5차 성찬식 맥추감사주일	2 마태복음 1장	3 마태복음 2장	4 마태복음 3장
8	9 마태복음 7장	10 마태복음 8장	11 마태복음 9장
15	16 역대상 11장	17 역대상 12장	18 역대상 13장
22	23 역대상 17장	24 역대상 18장	25 역대상 19장
29	30 역대상 23장	31 역대상 24장	

August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 마태복음 4장

6 마태복음 5장

7 마태복음 6장

12 마태복음 10장

13 마태복음 11장

14 마태복음 12장

19 역대상 14장

20 역대상 15장

21 역대상 16장

26 역대상 20장

27 역대상 21장

28 역대상 22장

교회 주요 일정

7월 1일

제5차 성찬식
맥추감시주일

나의 주요 일정

- ❶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❷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❸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❹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❺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❻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❼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❽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 ❾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 ❿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언약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계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영원을 보증하는 사랑을 믿는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2012년 7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SPIRIT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 주일

2 월요일

☐ 마태복음 1장

3 화요일

☐ 마태복음 2장

4 수요일

☐ 마태복음 3장

5 목요일

☐ 마태복음 4장

6 금요일

☐ 마태복음 5장

7 토요일

☐ 마태복음 6장



새로운 계명

New Covenant Love

| 초점 |

사랑의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 찬송 |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요한복음 13:31~35

⁽³¹⁾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³²⁾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³³⁾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³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³⁵⁾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의 성경 본문은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자 첫 주의 만찬을 다루고 있습니다(요 13:1). 마태(마 26:17,26~28), 마가(막 14:22~24) 그리고 누가(눅 22:19~20)는 이 상황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언어적 가르침을 기록하기보다, 요한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등의 예수님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요 13:3~5).

※ 요한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렘 31:31~34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표현됨을 깨달았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사랑의 새 계명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새 계명을 계획하셨습니다.

요 13:31~32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하러 주의 만찬장을 떠난 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으며,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입증하실 것이었습니다.

※ '아가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아들의 선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가페를 이해할 수 있으며, 순종과 자기 부인으로 이 사랑의 선물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간에는 물론,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향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요 13:33

십자가가 예수님의 목전에 있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리 주님의 떠나심에 관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제자들이 더욱 강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 16:7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이며, 그분은 진실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새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분의 희생적 죽음은 물론, 그분을 따르는 것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엡 2:16

※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요 13:34~35

아가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요 13:12~13). 이 새 사랑의 언약이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 사랑의 언약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사랑의 언약이 지금 우리를 지탱하게 하며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고 증거했습니다.

주의 만찬이 주는 메시지는 사랑의 새 언약이며, 또한 살아가면서 그대로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새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떡과 잔을 취할 때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이 창조하셨던 새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심으로 새 언약을 확정하셨으며, 각 신자 안에 특별한 사랑, 즉 하나님 본성의 궁극적 표현인 아가페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요일 3:14,18 _____

요일 3:23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새로운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 ②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③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복합재료의 특성

본 문서는 복합재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합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를 조합하여 만든 재료로, 각각의 재료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특성을 갖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탄소 섬유 복합재료는 높은 강도와 경량성을 가지며, 항공기나 자동차에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유리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유리 섬유 복합재료는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고, 건축 자재나 선박에 사용됩니다.

복합재료의 특성은 구성 재료의 종류, 조합 방법, 제조 공정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복합재료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복합재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합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를 조합하여 만든 재료로, 각각의 재료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특성을 갖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탄소 섬유 복합재료는 높은 강도와 경량성을 가지며, 항공기나 자동차에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유리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유리 섬유 복합재료는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고, 건축 자재나 선박에 사용됩니다.

복합재료의 특성은 구성 재료의 종류, 조합 방법, 제조 공정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복합재료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복합재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합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를 조합하여 만든 재료로, 각각의 재료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특성을 갖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탄소 섬유 복합재료는 높은 강도와 경량성을 가지며, 항공기나 자동차에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유리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유리 섬유 복합재료는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고, 건축 자재나 선박에 사용됩니다.

복합재료의 특성은 구성 재료의 종류, 조합 방법, 제조 공정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복합재료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복합재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합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를 조합하여 만든 재료로, 각각의 재료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특성을 갖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탄소 섬유 복합재료는 높은 강도와 경량성을 가지며, 항공기나 자동차에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유리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유리 섬유 복합재료는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고, 건축 자재나 선박에 사용됩니다.

복합재료의 특성은 구성 재료의 종류, 조합 방법, 제조 공정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복합재료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복합재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합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를 조합하여 만든 재료로, 각각의 재료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특성을 갖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탄소 섬유 복합재료는 높은 강도와 경량성을 가지며, 항공기나 자동차에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유리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유리 섬유 복합재료는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고, 건축 자재나 선박에 사용됩니다.

복합재료의 특성은 구성 재료의 종류, 조합 방법, 제조 공정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복합재료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복합재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합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를 조합하여 만든 재료로, 각각의 재료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특성을 갖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탄소 섬유 복합재료는 높은 강도와 경량성을 가지며, 항공기나 자동차에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유리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유리 섬유 복합재료는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고, 건축 자재나 선박에 사용됩니다.

복합재료의 특성은 구성 재료의 종류, 조합 방법, 제조 공정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총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
찬송가 483장

묵상노트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아로서 구속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의 역사적, 혈통적 배경과 그의 계보, 개인적 탄생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의 중요성은 마태복음의 첫 장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첫 단추를 낀다는 점에서, 또한 구속사의 성취가 비로소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습니다.

1~17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족보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의 유대적 왕의 혈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자손임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왕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부(18~25절)에서는 인간적 측면에서의 혈통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적 지위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의 신분이 단지 인간적 왕권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인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패역한 죄인들을 위해 친히 '임마누엘' 하시어 참된 화해, 참된 구원을 이루실 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인신 그분께서 이 역사 속에, 인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총이 있음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 그리스도(16절) : '기름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서,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칭호이다. 이 명칭은 구약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며, 신약에 와서는 구약시대부터 대망된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마 1:17)

Thus there were fourteen generations in all from Abraham to David, fourteen from David to the exile to Babylon, and fourteen from the exile to the Christ. (Mt. 1:17)

기도제목

- 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은총이 있게 하소서.
- ② 총천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선지자의 예언대로

3

화요일

마태복음 2장

찬송가 518장

묵상노트

예수님의 인간되심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나 즉흥적으로 일어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이미 계획되고 작성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것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후에 일어난 급박한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심각한 위기촉발의 역경 속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2장은 총 세 번에 걸쳐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록하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6절)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고(미 5:2),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다는 것도 이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예언된(호 11:1) 사실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칼날에 무수히 죽어가는 아기들의 울음소리(18절)조차도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견된 것(렐 31:15)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의 행적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작성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간섭이요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일어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는지를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마 2:23)

And he went and lived in a town called Nazareth. So was fulfilled what was said through the prophets: "He will be called a Nazarene." (Mt. 2:23)

• 나사렛(23절): 갈릴리 바다 남단과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예수께서 공생애 전까지 거주하신 마을이다. 이름 앞에 출신 지역을 붙이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통상적인 표현법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록

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여 주시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에서로잡힌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찬송가 273장

묵상노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2절). 이 선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분명한 복음의 제시입니다. 그럼에도 회개의 참된 의미는 상당 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적 뉘우침, 또는 도덕적, 윤리적 반성 등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행 20:21). 회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신자의 반응입니다. 또한 회개의 분명한 근거도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그 회개가 자신의 공로가 되지 않는 것은 회개의 근거가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회개의 공로가 되십니다.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3~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위로 올라오실새 다음과 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음성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라’ 하실 때에 그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인간적 마음의 뉘우침이 회개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 **석칭(4절)** : 나무나 돌틈에 벌들이 모아놓은 야생꽃로서 ‘들꽃’(공동번역이라고도 불린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마 3:2)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Mt. 3:2)

기도제목

① 날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오직 말씀으로

5

목요일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사탄은 무려 세 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 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분명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빠뜨린 그런 유혹의 시험이었으며, 사도 요한이 지적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요일 2:16)에 해당하는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 8:3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응화했고, 두 번째 시험에 관해서도 신명기 6:16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시험은 신명기 6:13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신자를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과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그들을 이길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싸워야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직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며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 4:4)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Mt. 4:4)

마태복음 4장
찬송가 202장

묵상노트

• 시험을 받으라(1절) : 헬라어 동사 '페이라조'(시험하다)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락을 의미하고, 둘째는 인간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연단을 나타낸다. 본문의 단어는 전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오직 말씀으로 세상에서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찬송가 508장

묵상노트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새로운 특징을 '산상에서의 가르침' (산상설교)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의 첫 가르침은 바로 '팔복'으로 복이 있는 사람의 여덟 가지 유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며 명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의 개념은 그 초점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마음이 넉넉한 자를 복이 있다고 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자를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힘이 있고 강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거짓과 탐욕에 능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맹렬히 싸워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자기를 감추고 은폐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싸우고 싸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최고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가 최고의 복이 있는 자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신자의 사랑과 열망, 소원과 애절한 사모함이 신자의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 심령이 가난한 자(3절) :
최악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의미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Mt. 5:3)

기도제목

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 받을 줄 기뻐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염려하지 말라

7

토요일

천국 백성은 염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시고 전부 이시며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 금식을 설명하시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가 남에게 구제를 하고 섬기는 것과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 보상과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자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이며 전부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기도를 했기에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임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쌓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목적이시고 목표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정답이시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신자는 결코 염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추셔서 이루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방인의 습관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한 만큼 신이 감동하여 주신다는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경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은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리라(마 6:34)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Mt. 6:34)

마태복음 6장
찬송가 382장

묵상노트

• **중언부언(7절)** : '변말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으로서, 헛된 말을 정황하게 늘어놓는 형식적인 기도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자기 맛때로의 기도를 의미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선교는 삶이다

”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 교회의 존재 가치는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복음 전파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계절이 왔습니다. 방학을 앞둔 중·고·대학생들이 막바지 선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회사의 휴가를 이용하여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중요한 것은 선교는 선교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일터 등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눅 9:23).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교사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 1:3).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8 주일

9 월요일

☐ 마태복음 7장

10 화요일

☐ 마태복음 8장

11 수요일

☐ 마태복음 9장

12 목요일

☐ 마태복음 10장

13 금요일

☐ 마태복음 11장

14 토요일

☐ 마태복음 12장

2

자살에서 구원으로

From Suicide To Salvation

| 초점 |

생명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 찬송 |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본문 | 사도행전 16:25~34

⁽²⁵⁾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²⁶⁾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²⁷⁾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²⁸⁾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²⁹⁾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³⁰⁾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³¹⁾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³²⁾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³³⁾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³⁴⁾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의 성경 본문은 감옥 안에서 일어난 영광스러운 생명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행 16:9~10).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님은 이를 막으셨습니다(행 16:6).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울에게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다(행 16:14~24).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폭력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기쁨의 이유

고통의 때에 무엇이 영혼을 기쁘게 합니까? 눈앞의 문제보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영혼은 기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 16:25

바울과 실라는 투옥되어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종이 그들을 매우 불편한 상황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 바울과 실라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항상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옳은 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갔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영혼에 기쁨이 가득하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믿었습니다.

살전 5:16~18

요 14:1

절망의 이유

고통의 때에 무엇이 사람을 절망하게 합니까? 눈앞의 문제만을 볼 때입니다.

행 16:27

간수는 세상적인 눈으로 자신의 처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했고, 자신과 가족에게 닥칠 수치를 생각하였으며, 자신의 상관들이 보일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만일 죄수들이 도망갔다면, 어찌 되었든 그 자신이 처형당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자결함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함정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자살은 전염병처럼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해결책은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려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일시적이지만 자살이란 해결책의 결과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선하신 목자가 가까이 계신데, 왜 잠깐뿐인 파괴자에게 의지합니까?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께 의지하여 영혼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 10:10

구원의 이유

고통의 때에 무엇이 영혼을 구원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행 16:28 _____

바울은 영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만일 누가 정당한 이유없이 우리를 때리고 묶어 더러운 감옥에 가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자살한들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바울은 그 무엇보다 타인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행 16:29~34 /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_____
_____ 하거늘 이르되 _____
_____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_____ 크게 기뻐하니라

재난이 될 뻔했지만 큰 축하연이 되었으며, 간수는 자살로부터 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슬픈 장례식 대신 세례식이 행해졌으며, 온 가족에게는 슬픔 대신 아름답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울부짖으며 이별하는 대신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절망의 수렁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의 기쁨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가족, 일, 건강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주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심령은 평화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한 고통 중에도 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여러분의 모습에 주목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요 14:27 _____

빌 3:20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생명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 ②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 ③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7장
찬송가 381장

묵상노트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섬기며 기도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모든 것은 결국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 특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며,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으며, 두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애쓰고 힘써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열심의 영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 못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결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이면 분명히 신자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아무리 해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믿음과 관련된 문제이지 인간적인 노력, 애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고행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려 하는 애씀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주의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 **비판(1절)** : 헬라어 동사 '크리노' (비판하다)이다. 율법의 규례에 근거하여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려는 판단과 애도를 의미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마 7:16)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Do people pick grapes from thornbushes, or figs from thistles?(Mt. 7:16)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욱 누리시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10

화요일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에 시달리고 있는 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을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고침과 쫓아냄을 통해 죄와 사망의 울무에 매어 있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의 곁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하 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한 마디 말씀으로 인류의 모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을 각각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병의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은 병이 낫는 것이 주된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병 고침 자체가 아니라 병을 고쳐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자 신이 곧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백부장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으며(13절), 또한 바람과 바다조차 순종하게 만드시는 만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27절).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 주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마 8:13)
Then Jesus said to the centurion, "Go! It will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And his servant was healed at that very hour.(Mt. 8:13)

마태복음 8장
찬송가 472장

묵상노트

• 나병(3절) : '문둥병' (한글개역)이라고 한다. 심한 피부병의 일종이고 구약시대 때에는 천벌로 간주되기도 했다. 치료는 거의 불가능했으며 본문에서의 문둥병의 치유는 곧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의미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고정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 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9장
찬송가 471장

묵상노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며 고쳐 주셨습니다. 또 두 맹인은 예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며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35절). 그분께서는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36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을 적대하고 혐오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을 결코 미워하거나 패썹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눅 23:34),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패역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자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막 10:45).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 **혈루증(20절)** : 여성 질환 중 하나로서, 민성자 궁출혈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이란 질병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매우 불결한 것으로 여겨 공동체 생활에서 격리시키곤 했다(레 15:25).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마 9:36)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Mt. 9:36)

기도제목

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감격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총천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열두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롯 유다입니다(2~4절).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든지 오직 복음에 합당한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합당한 가치와 내용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28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38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고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니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십자가는 진정 주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십자가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의를 꺾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마 10:38)

And anyon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Mt. 10:38)

마태복음 10장
찬송가 218장

묵상노트

• 바알세불(25절) : 히브리어 '바알세불'의 헬라어 음역이다. '침의 주'라는 뜻으로, '천사들의 주인'.. 즉 '사탄'을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민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찬송가 401장

묵상노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20~24절). “고라신아, 벳새다야,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통탄해 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유의 종교적 열심, 또는 고행이나 인간적 뉘우침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항복하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생각이나 종교적 도리로는 참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25절). 어린 아이는 단순하고 절대적 의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믿음이며 회개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28~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향하여 “오라”고 권하십니다. 회개는 주님의 음성에 단순하게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 노력을 요구하거나 열심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분께 기꺼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복잡하게 생각하며 계산하지 말고 어린 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권능(20절) : 헬라어 '뒤나미스'이다. 이 말은 원래 자연의 물리적인 힘이나 객관적 능력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적' 또는 '초자연적인 행위와 사건'을 처리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기도제목

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부르시는 음성을 믿고 우리의 짐을 맡기고 내려놓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적들이 그들의 눈에는 신성모독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전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신앙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말과 행동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을 하고(1절), 게다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13절). 이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의논하기에 이릅니다(14절).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8절), “성전보다 더 큰 이”(6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분명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낱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지 결코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다. 단지 어떤 표적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요, 선지자쯤으로 이해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요,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이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잣대로만 판단하여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초점을 율법에 근거한 안식일과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적 열심과 인간적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실체이며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식으로 복음과 믿음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은총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 12:6)
I tell you that one greater than the temple is here. (Mt. 12:6)

마태복음 12장
찬송가 87장

묵상노트

• **자비(7절)**: 헬라어 ‘엘레오스’,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어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히브리어로 ‘자비’, ‘자비’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원래 혈연적 사랑에 근거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이 ‘아버지 됨’, ‘님’ ‘편’ 됨, ‘어머니 됨’을 근거로 한다. 그만큼 변함 없고 진실한 주의 사랑과 은총을 나타낸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는 삶이다!

전도는 특정한 날에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선교는 특정한 지역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즉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2012년에도 한 영혼을 향한

믿음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처음 다녀온 선교

선교 사역을 회상하면 초롱초롱한 그곳 사람들의 눈망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처음 다녀온 선교!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사역 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가정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 가정은 전에는 주님을 믿는 가정이었는 데 강제로 이슬람 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전하며 여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여인의 크고 맑은 눈에서 옥구슬 같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이 깊이 느껴졌다.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올 때 그 여인은 무척 아쉬워하며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내 양 볼에 뽀뽀까지 해 주었다. 그녀의 눈물 맺힌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그 여인의 눈물을 보면서 나는 내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선교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만 가는 거라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바꿔놓으셨다. 선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자기의 형편에 따라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도로 또는 물질로 후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이 죄인의 입술을 들어서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진(집사, 22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5 주일

16 월요일

☐역대상 11장

17 화요일

☐역대상 12장

18 수요일

☐역대상 13장

19 목요일

☐역대상 14장

20 금요일

☐역대상 15장

21 토요일

☐역대상 16장

복음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From Gospel Persecutor To Gospel Preacher

| 초점 |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 찬송 |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가 528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 본문 | 사도행전 9:1~6

“¹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²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³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⁴땅에 엎드려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⁵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⁶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회개는 언제나 위대한 소식입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위대한 소식입니다.

※ 나의 회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눅 15:10

새 신자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장 큰 죄인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바울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의 회개는 기적이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들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의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죄를 자각하다

죄의 자각에 대한 질문이 마침내 바울의 심령을 건드렸습니다.

행 9:4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치자, 이 완고하고 자존심 센 남자는 땅에 엎드려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을 돌로 칠 때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너무나 충실했기에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 사도행전 7:58, 8:1~3, 9:1~2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

바울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위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울이 주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알려 주신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길에 무엇을 보내셔야 할지 나누어 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다

회개에 대한 질문이 마침내 바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행 9:5

하늘의 빛에 의해 둘러싸인 그는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행복하였고 질문하신 분께 기꺼이 복종하였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공부했지만, 지금 그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습니다.

행 22:3

빌 3:8

바울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행 9:5). 예수! 바울의 신앙과 지성을 모욕했기 때문에 바울이 멸시했던 그 사람! 바울은 한때 그 사람을 경멸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했으나, 이제는 제자들을 학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듣자마자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 회개의 때(시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삶이 바뀐다

구별된 삶에 대한 질문이 바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행 9:6

예수님이 자신을 바울에게 계시하신 후에, 바울의 내적 자아는 진지하게 예수님께 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바울의 열망은 새롭게 만난 구세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온통 순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순종으로부터 크고 위대한 여러 은총이 내릴 것이었습니다.

히 5:9

벧전 5:5

순종의 종, 바울은 선교사가 되어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의 기자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행복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은총은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과격한 핍박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도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구세주, 구속자, 조력자, 주인이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최악의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바꾸셨는지, 어떻게 복음 핍박자를 복음 전도자로 바꾸셨는지 보여줍니다.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행 3:19 _____

딤후 4:5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 ②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우리 구역원(팀원)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왕의 가까운 혈족

역대상 11장
찬송가 94장

묵상노트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1~3절). 그 후 그는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곳을 다윗 성으로 삼습니다(4~8절). 하나님은 다윗에게 30명의 용사를 주셔서 그들로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습니다(10~14절). 그 중 세 명의 용사는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적진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물을 길어 왔으나 다윗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져온 물을 마실 수 없다며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립니다(15~19절). 다윗의 뛰어난 용사들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20~25절). 다윗 왕국 수립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한 용사들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충성하거나 형제들이 나란히 충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26~47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국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심지어 여호와와 회중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모압과 암몬 출신의 용사들과 헷 사람 우리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 열방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참여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로마 16:26; 계 5:9~10).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영원한 이방인인 우리가 왕의 가까운 혈족이 되어 거룩한 회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물이 없어도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 **아들람 굴(15절)** :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이곳에 몸을 숨겼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이다(대상 11:1)

All Israel came together to David at Hebron and said, "We are your own flesh and blood." (1 Chr. 11:1)

기도제목

① 나의 공로가 아닌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역대상 12장
찬송가 261장

묵상노트

하나님은 다윗이 곤경에 처하여 도망 다닐 때도, 완벽한 패배처럼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을 도와 함께 싸운 사람들은 사울의 동족이었으나,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사울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살던 다윗과 함께 하며 그를 도와주었습니다(1~22절).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모여든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각 지파별로 다윗을 돕는 군사들의 명단이 열거되는 중에 군사적인 직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레위 지파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온 이스라엘이 참여했다는 것과 다윗 왕국이 얼마나 성전 예배를 중요시 했는지를 보여줍니다(23~40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한 마음을 품자, 큰 잔치와 참 평안과 희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언제나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헛되고 어리석은 우상을 왕으로 숭배할 때는 잠시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듯하나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면 세상의 조봉거리가 될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대상 12:38)

All these were fighting men who volunteered to serve in the ranks. They came to Hebron fully determined to make David king over all Israel. All the rest of the Israelites were also of one mind to make David king. (1Chr. 12:38)

• **시세를 알고(32절)** :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민심을 통해 드러난 시대 상황을 잘 깨달았다는 뜻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지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② 김성권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여 주시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수레에 싣고 온 하나님의 궤

역대상 13장
산상가 190장

묵상노트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모든 지도자들과 방백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합니다(1~4절). 언약궤를 옮길 때는 아론 자손이 휘장으로 덮고, 고향 자손이 어깨에 메며 성물은 만지지 말아야 하는데,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옷사가 언약궤를 만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5~11절). 옷사가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즉사하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을 멈추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벵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12~14절).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삼만 명의 무리가 투입될 정도로 국가의 큰일이었습니다(삼하 6:1).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언약궤 옮기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인 것은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국가 체제를 갖추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궤를 옮기는 방법을 이미 알려 주셨지만 다윗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수레에 궤를 싣고 옮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여호와와 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옮겨질 때 춤을 추며 한없이 기뻐하였지만, 그 기쁨은 금새 근심으로 변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판단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 하나님의 궤(3절) : 만사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싯 난 지팡이, 십계명이 들어 있는 언약궤이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옷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대상 13:7)
They moved the ark of God from Abinadab's house on a new cart, with Uzzah and Ahio guiding it. (1Chr. 13:7)

기도제목

① 내 판단을 따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이 홀으셨다

19

목요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아 쓰임 받았던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 주신 것과 왕궁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1~2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오자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대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8~12절).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자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습공격으로 적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앞서 싸우셨으며, 이 일로 인해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13~17절).

블레셋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다윗은 먼저 이 싸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묻지 않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친 후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홀으셨다”(11절)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과 그 부하들의 용맹스러움이나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소식은 다윗의 명성과 함께 금방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며,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이 참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에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에 우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홀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시미라 부르니라(대상 14:11)
So David and his men went up to Baal Perazim, and there he defeated them. He said, "As waters break out, God has broken out against my enemies by my hand." So that place was called Baal Perazim. (1Chr. 14:11)

역대상 14장
찬송가 527장

무상노릇

• **크리암 골짜기(9절)** : 문
자적으로 '거인들의 골
짜기'라는 의미이다. 예
루살렘 남서쪽 약 3km
자정에 위치하고 있다.

기도노릇

기도제목

- 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에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참된 예배

역대상 15장
창송가 272장

묵상노트

여호와와의 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기기 위해 성 안에 장소를 마련합니다. 다윗은 이미 한 번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레위 사람 외에는 언약궤를 댈 수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1~2절).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3~10절). 다윗은 지난번에 언약궤를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온 일에 대해서 설명하며 규례대로 할 것을 명령합니다(11~13절). 레위 사람들은 명령을 따라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궤를 꺾어 어깨에 메었으며, 다른 형제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14~28절).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모두들 찬양하며, 춤을 추고 즐거워하였으나 이를 본 사울의 딸 미갈은 그러한 다윗을 그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29절).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반겼지만, 단 한 사람만은 하나님보다 전통과 체면을 중요시했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언약궤를 메었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찬양대는 노래를 부르고, 온 이스라엘은 기쁨의 축제를 벌였지만, 마음에 업신여김이 있었던 미갈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으로 앉아 있다면 이는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게 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나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힘입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몸을 성결하게 하고(12절) : 종교적인 성결 의식을 말한다.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영적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여호와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대상 15:29)

As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was entering the City of David, Michal daughter of Saul watched from a window. And when she saw King David dancing and celebrating, she despised him in her heart. (1 Chr. 15:29)

기도제목

① 교만한 맘을 내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시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21

토요일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와 궤 앞에서 섬기며 찬송케 하였습니다(1~6절).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며, 그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7~15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16~17절).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18~22절). 그러므로 아삽과 그 형제들이 부르는 이 감사의 찬양은 여호와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가득하였고,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23~36절).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와 궤 앞에서 항상 섬기게 하였고 아침 저녁로 번제를 드렸으며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37~4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윗 시대에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지만, 다윗 왕국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보호하시고 그 후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자랑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도(대상 16:10)

Glory in his holy name; let the hearts of those who seek the LORD rejoice. (1Chr. 16:10)

역대상 16장
찬송가 535장

묵상노트

• 아멘(36절) : 앞서 말한 것에 성실한 동의를 표현하는 말. 찬송이나 기도 뒤에 사용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로 드러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

주님이 내민 못 박힌 손을 잡고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섰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택한 기쁨을 아니?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아니?
말씀하실 때 난 떨어진 낙엽에 고개 떨군다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니?
난 너를 위해 낙타의 무릎처럼 기도했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니?
물으실 때 난 떠가는 구름만 바라다본다

네 뒤통의 양 땀을 말길 테니
잘 보호해 줄 수 있겠니?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수 있겠니?
바라보실 때 난 높이 솟은 산만 올려다본다

이 순간에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니?
눈물 흘리실 때 난 바람처럼 그 자리를 떠난다

무취의 향기처럼
쏟아진 언덕을 내려가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며
땅 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난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다

주님 내려가신 그 발자국 위로
떨리는 두 손을 부여잡고
마음 모아 두 손 모아
눈물로 고백한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 작자 미상 -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2 주일

23 월요일

☐역대상 17장

24 화요일

☐역대상 18장

25 수요일

☐역대상 19장

26 목요일

☐역대상 20장

27 금요일

☐역대상 21장

28 토요일

☐역대상 2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Letter To The Ephesian Church

| 초점 |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 찬송 |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본문 | 요한계시록 2:1~7

^㉑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㉒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㉓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㉔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㉕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㉖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㉗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계시의 편지는 요한에 의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해 쓰였습니다. 요한은 기자였고, 예수님이 원 저자였습니다. 부활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계시 가운데 세 종류의 시대를 언급하셨습니다.

계 1:19 / 그러므로 네가 본 것(부활하신 그리스도)과 지금 있는 일(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에 기록된 내용)과 장차 될 일(예언들)을 기록하라

오늘의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요한 시대에 실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의 유형과 상황을 대표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를 대표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활동적인 교회이지만, 에베소 교회와 동일한 문제로 인해 우리 속에서 고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충현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칭찬하시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계 2:2~3 _____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활동 및 성과와 행위를 알고 계셨으며, 그들의 믿음과 노고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구원과는 무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한 일들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선한 일들'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았을 때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엡 2:8~9 _____

_____엡 2:10 _____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밝힌 것과 확고부동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훌륭한 모든 업적들로는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꾸짚으시다

뒤이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꾸짚으십니다.

계 2:4

대다수가 첫사랑, 즉 누군가에게 심령과 마음을 너무나 강렬하게 빼앗겨 절대로 질리지 않는 사랑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첫사랑이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편지를 읽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무엇을 하든지 완전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에베소의 신자들이 그분을 향한 첫사랑을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을 때,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만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식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덜 중요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단지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도 완전히 기계적으로만 읽으며 종종 소홀히 여길지 모릅니다. 심지어 기도조차도 형식적으로 변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을 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빛도 꺼지게 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계 2:5 _____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출산, 새 직장, 목돈을 만진다는 기대감 따위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하십시오. 만주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하며 삶을 분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 지금 나의 삶의 우선 순위가 어떠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회개하라고 부르시며 그동안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설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 21:41 _____

눅 20:16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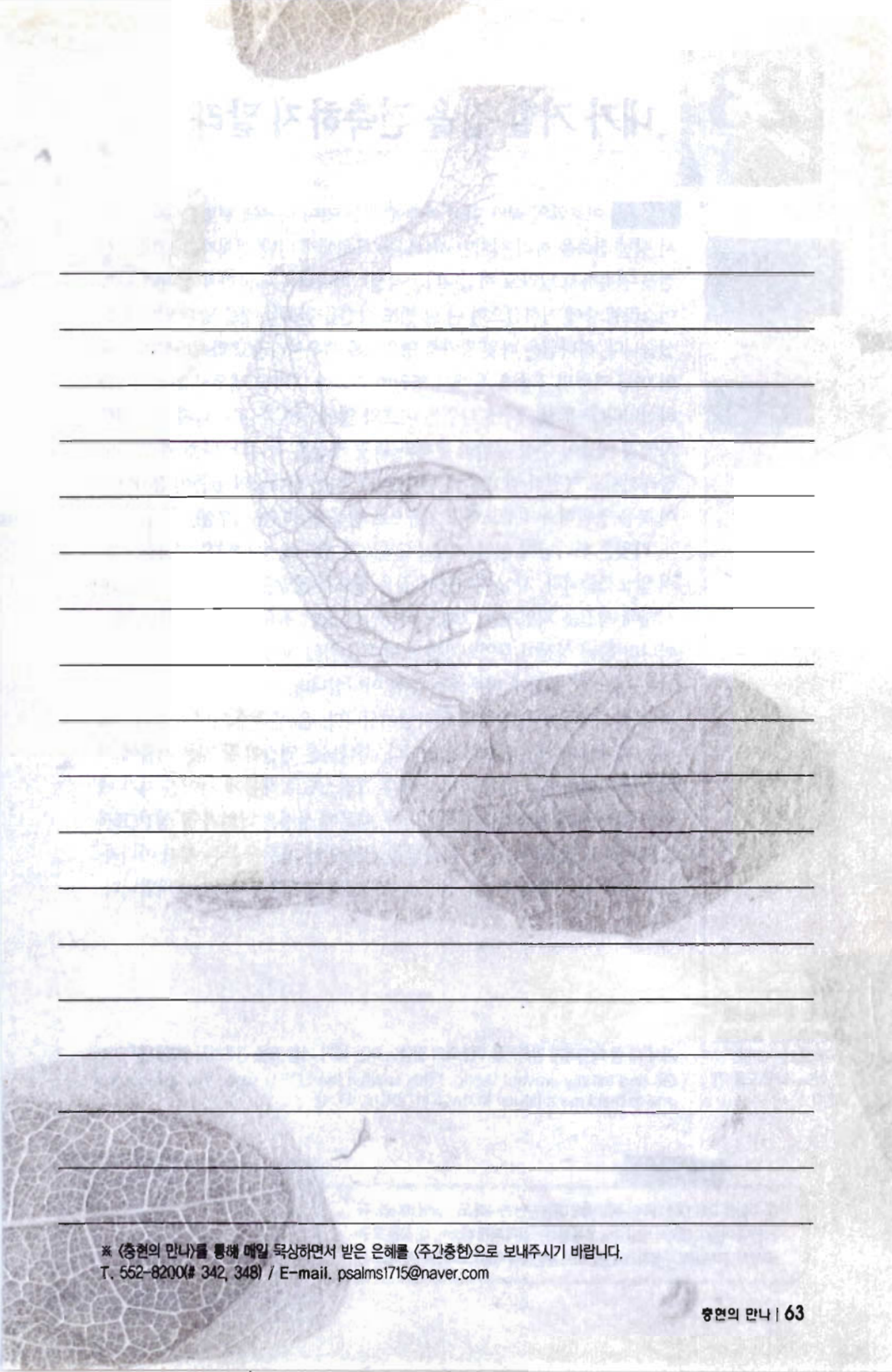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첫사랑이신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열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첫사랑만큼이나 빛나게 합시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계 2:7 _____

벧후 3:9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역대상 17장
찬송가 210장

묵상노트

다윗은 여호와와 그의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1~4절). 하나님은 지금까지 장막과 함께 이스라엘 중에 거하셨으며 단 한 번도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영원토록 세우시리라 약속하시며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7~15절). 이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에게 베푸어 주신 무한한 은혜와 다윗 자신뿐 아니라, 다윗 가정의 먼 장래까지도 영원히 견고케 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노라고 기쁨으로 반응합니다(16~27절).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집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집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 지은 건물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지어진 자기 백성의 새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곧 성전(고전 3:16)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전이 되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 네 아들 중 하나(11절) :
일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
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
리킨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대상 17:4)

Go and tell my servant David,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 are not the one to build me a house to dwell in." (1Chr. 17:4)

기도제목

① 주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고 예배에만 한번 만나러 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다윗 왕국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고, 또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아 내었습니다(1~2절).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을, 서쪽으로 블레셋을, 남쪽으로 에돔을, 북쪽으로 다메섹 아람을 정복하여 다윗 왕국에 포함시켰습니다(3~13절). 이후 다윗은 밖으로는 군사적인 면을 강화하고, 안으로는 영적인 면을 견고하게 조직하여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 갑니다(14~17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14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왕이 축재를 하지 않고 재물에 욕심이 없이 오직 이스라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뜻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분명 그러한 것을 정의와 공의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정의와 공의가 그러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국가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정의와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합니다. 로마서 6:14은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 위치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법으로 다스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모진 고통의 형벌을 받으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순종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역대상 18장
찬송가 510장

묵상노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대상 18:14)

David reigned over all Israel, doing what was just and right for all his people.(1Chr. 18:14)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4절)
절 : 발의 발 힘줄을 끊으면 달릴 수 없고 싸울 수도 없지만 다윗은 무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같이 행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율법 아래에 있어 무의식 중에 고행하는 것이 믿음에 아픔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거하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역대상 19장
찬송가 144장

묵상노트

암몬 왕 나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기억하여 사절들을 보내 문상하게 합니다(1~2절). 그러나 나아스의 아들 하논은 신하들의 악을 부추기는 말에 마음을 빼앗겨 은혜를 무시했습니다(3~5절). 그는 은혜를 무시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병자와 마병들을 고용하여 다윗을 향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6~9절). 다윗의 군사 요압과 아비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지만, 돈으로 고용된 아람의 군사들은 상황이 불리하면 도망치려는 자세로 전투에 임했습니다(10~15절). 다윗의 군대에 패한 아람의 군대는 주변에 있는 지원군을 다시 모아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16~19절).

7절을 보면 “곧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모욕하고 돌려 보낸 뒤에 다윗이 이에 분노할 것을 염려하여 여러 곳에서 군사들을 고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논은 많은 군사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 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다윗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사람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서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 수염을 깎고(4절) :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였다.

곧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치며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대상 19:7)

They hired thirty-two thousand chariots and charioteers, as well as the king of Maacah with his troops, who came and camped near Medeba, while the Ammonites were mustered from their towns and moved out for battle.(1Chr. 19:7)

기도제목

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요압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습니다(1절). 다윗은 요압의 승리로 인해 암몬 왕의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며, 성읍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2~3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십브개로 인해 승리했고(4절),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아일의 아들 엘하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5절),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6~8절).

사무엘하는 다윗과 밋세바의 간통 사건을 다루었지만, 역대기는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기록합니다. 분명히 승리보다는 패배와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완전한 승리가 다윗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의 죽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의 책임을 죄 없는 아이에게 물으심으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임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임을 당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한탄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 서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에 대해 한탄해야 합니다. 귀가 닳도록 들은 십자가가 율법이 되어 굳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늘 자기를 부인함으로 겸손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대상 20:1)

In the spring, at the time when kings go off to war, Joab led out the armed forces. He laid waste the land of the Ammonites and went to Rabbah and besieged it, but David remained in Jerusalem. Joab attacked Rabbah and left it in ruins. (1Chr. 20:1)

역대상 20장
찬송가 528장

묵상노트

• 큰 재(4절) : 히브리어로 '르바임'이라 하며, 거인 죽을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오늘도 내 죄의 결과로 인해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소서.
-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역대상 21장
찬송가 278장

묵상노트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국을 다스린 다윗 왕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이스라엘을 계수하고자 합니다(1~2절). 요압은 왕의 명령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3~7절).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징계의 방법을 다윗에게 직접 고르게 하셨습니다(8~13절). 다윗은 전염병을 택하였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슬퍼하며 회개합니다(14~17절).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셨고, 다윗은 타작 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18~30절).

다윗이 제단을 쌓자 곧 여호와의 진노가 사라집니다(26절). 우리는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윗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제물의 희생 때문에 다윗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재앙을 멈추게 한 번제와 화목제가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던 재앙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재앙을 대신 담당한 제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공홀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독생자에게 대신 쏟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향한 진노와 재앙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대상 21:26)

David built an altar to the LORD there and sacrific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He called on the LORD, and the LORD answered him with fire from heaven on the altar of burnt offering. (1Chr. 21:26)

• 칼을 뽑은 자(5절) : 군인이 되어 싸우려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28

토요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역사에 동참케 했습니다(1~5절).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했습니다(6~10절).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성전을 짓게 될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며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11~16절).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울 것과 열심히 성전 건축을 도와서 여호와와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건축한 성전에 들일 것을 명령합니다(17~19절).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되지도 않은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진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묻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정성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은 가깝게는 솔로몬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빛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대상 22:10)

He is the one who will build a house for my Name. He will be my son, and I will be his father. And I will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over Israel forever.(1Chr. 22:10)

역대상 22장
찬송가 408장

묵상노트

• 거멸 뭇(3절) : 나무가 벌어진 우레가 있는 곳에 대고서는 단단히 박아 고정시키는 뜻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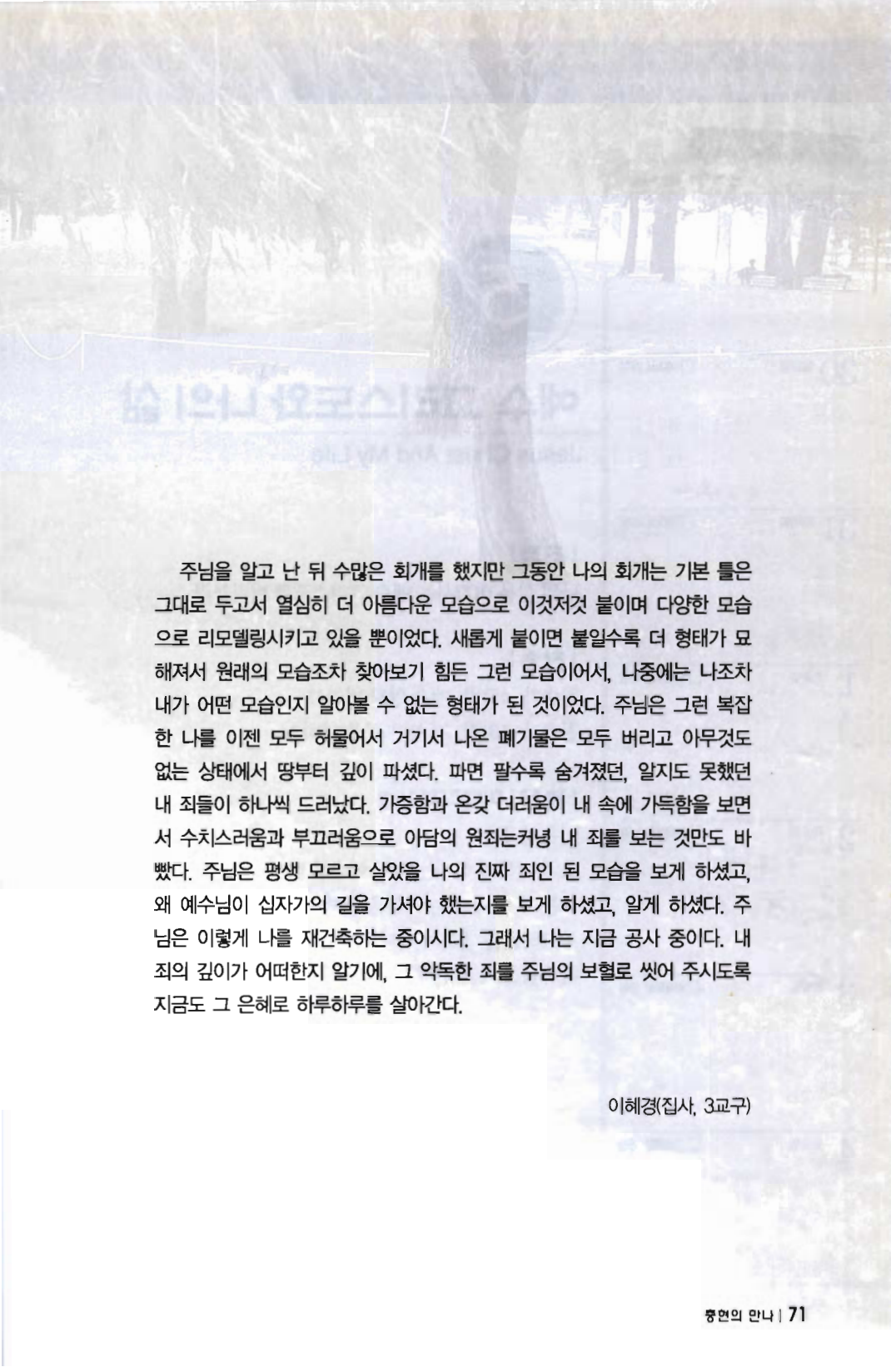
① 언약을 이루어 주셨으며,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혼란을 통해서 지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0)이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공사 중

얼마 전 늘 다니던 길에 기존 집을 헐고 새로 공사하는 현장을 지나게 되었다. 땅을 파고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훨씬 깊고 넓은 지층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지층의 색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참 다양해 보였다. 걸음을 옮기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씀이 생각났다. 한참 동안 멍하니 걸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제법 오랜 신앙생활을 해 온 나의 삶 속에서 회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동안의 회개 제목, 회개의 깊이 등 그때와는 또 다른 지금의 나의 생각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이 자리 잡혀갔다. 그즈음 결혼하여 충현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육의 부모, 영의 부모들에게 본질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외치는 말씀이 시원하게 느껴져 대리 만족까지 얻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특정인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나 같이 교회 안에서 시간과 몸을 드리며 타성에 젖은 자를 향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회개의 말씀이 비수처럼 박혀 설교 시간 동안 가슴이 너무 아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 힘들 때도 있었다. '그동안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찔림과 회개와 만지심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예배를 향한 또 다른 기대와 함께 '숨겨진 내 죄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함까지 갖게 되었다.



주님을 알고 난 뒤 수많은 회개를 했지만 그동안 나의 회개는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서 열심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것저것 붙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리모델링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새롭게 붙이면 불일수록 더 형태가 묘해져서 원래의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어서, 나중에는 나조차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된 것이었다. 주님은 그런 복잡한 나를 이제 모두 허물어서 거기서 나온 폐기물은 모두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땅부터 깊이 파셨다. 파면 팔수록 숨겨졌던, 알지도 못했던 내 죄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가증함과 온갖 더러움이 내 속에 가득함을 보면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아담의 원죄는커녕 내 죄를 보는 것만도 바빴다. 주님은 평생 모르고 살았을 나의 진짜 죄인 된 모습을 보게 하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지를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재건축하는 중이시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공사 중이다. 내 죄의 깊이가 어떠한지 알기에, 그 악독한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도록 지금도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혜경(집사, 3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9 주일

30 월요일

☐ 역대상 23장

31 화요일

☐ 역대상 24장

1 수요일

☐ 마태복음 13장

2 목요일

☐ 마태복음 14장

3 금요일

☐ 마태복음 15장

4 토요일

☐ 마태복음 16장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

Jesus Christ And My Life

| 초점 |

나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 찬송 |

찬송가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본문 |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신 우리의 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구원받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예수님의 향한 나의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마 1:21 _____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멈춰 선 이에게는 경고를, 바라보는 이에게는 은혜를, 또 귀 기울여 듣는 이에게는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 서서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살펴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멈추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멈춰 서야 합니다.

요 3:14~16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던 뱀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들을 구해 줄 무기도, 치료약도 없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 장대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 21:8~9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가 있으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며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멈춰 서서,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혹과 시련 속에서 바라보라

우리는 유혹과 시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히 4:14~15 _____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에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육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타협은 없습니다!

※ 갈라디아서 5:17, 로마서 6:11~13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원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론 가족들까지 안팎으로 공격합니다. 낙심하거나 패배감을 느낄 때 우리는 가장 연약해지겠지만, 그때야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실 것이며, 우리를 권고하고 무장시켜 능력을 주사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여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신앙이 퇴보할 때 예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계 2:7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베드로는 일을 크게 망쳐 버렸습니다(눅 22:60~62).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악 된 길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께만 멈춰 서서 바라봄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히 12:2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다른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실망하거나 실수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장애를 훌륭하게 통과하시어 이미 목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항상 더 높은 곳으로 이끌리게 됩니다(벧전 2:21~25).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멈춰 서서, 귀 기울여 들으며,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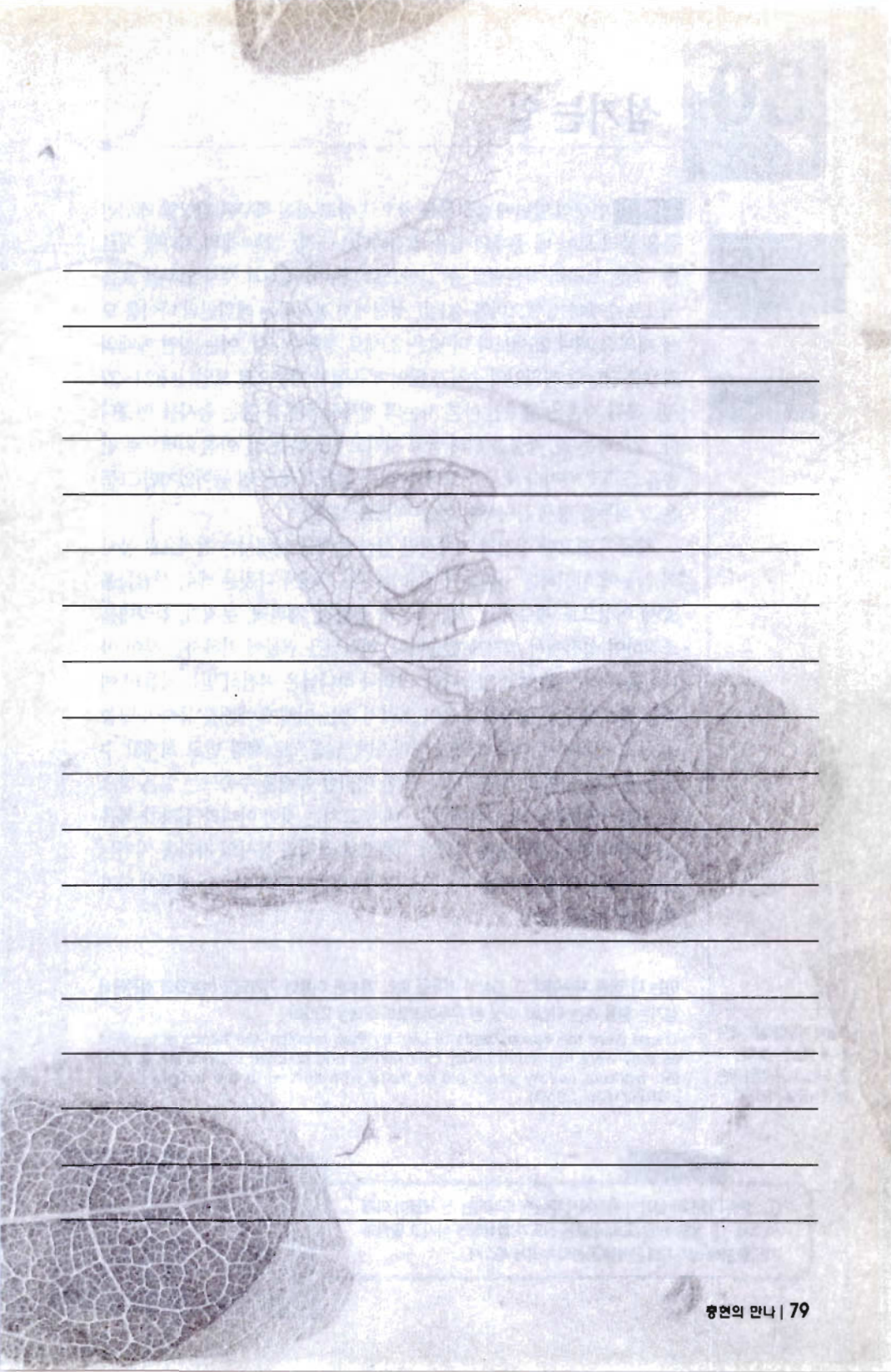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답을 찾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귀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하십시오. 멈춰 서서, 바라봄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짐은 사라질 것입니다. 멈춰 서서, 바라봄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은총을 받으며,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롬 10:17 _____

계 2:11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복음의 은총으로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③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 구역원(팀원)들이 되게 하소서.



섬기는 일

역대상 23장
찬송가 447장

묵상노트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성전 직무를 감당할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네 종류의 일을 맡깁니다(1~5절). 그는 레위 지파를 게르손, 그핫, 므라리 자손별로 총 24반으로 나누어 성전과 제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했으며(6~23절),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나이를 모세 때의 30세나 25세보다 더 낮은 20세로 정했습니다. 이는 성전 예배의 직무를 담당할 레위인의 숫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24~27절). 레위 자손은 형제인 아론 자손의 제사장 직무를 돕는 봉사를 했습니다. 청소하는 일, 제물을 위해 굶고 지지고 반죽하는 일, 아침 저녁으로 찬송을 드리고 때마다 제물을 드리는 일 등 힘들고 귀찮은 일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직무를 평생 감당해야 했습니다(28~32절).

왕국의 견고한 성전과 지속적인 성전 예배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봉사의 직무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하고 그들 가운데 행정직, 재판직, 문지기, 찬양대를 조직하여 성전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십자가 복음이 흐려져 가는 이때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으로 책망 받고 회개할 수 있음은 믿는 자만의 특권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를 수종드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롬 12:1).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십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대상 23:24)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Levi by their families--the heads of families as they were registered under their names and counted individually, that is, the workers twenty years old or more who served in the temple of the LORD. (1Chr. 23:24)

• 조상의 가문(24절) :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그핫, 므라리 곧 레위 자손의 조상들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언제나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31

화요일

역대상 24장
찬송가 349장

묵상노트

레위인들 24반열로 재정비한 다윗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도 24반열로 조직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1~19절). 다윗은 대제사장 직분을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닌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인들은 아론 자손을 도와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아론 자손들의 직무와는 달랐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과 규례는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세운 법규에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20~31절).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레 10:1~2).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우리의 사사로운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에게서 언제나 선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열심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그것은 이 세상의 죄악 된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대상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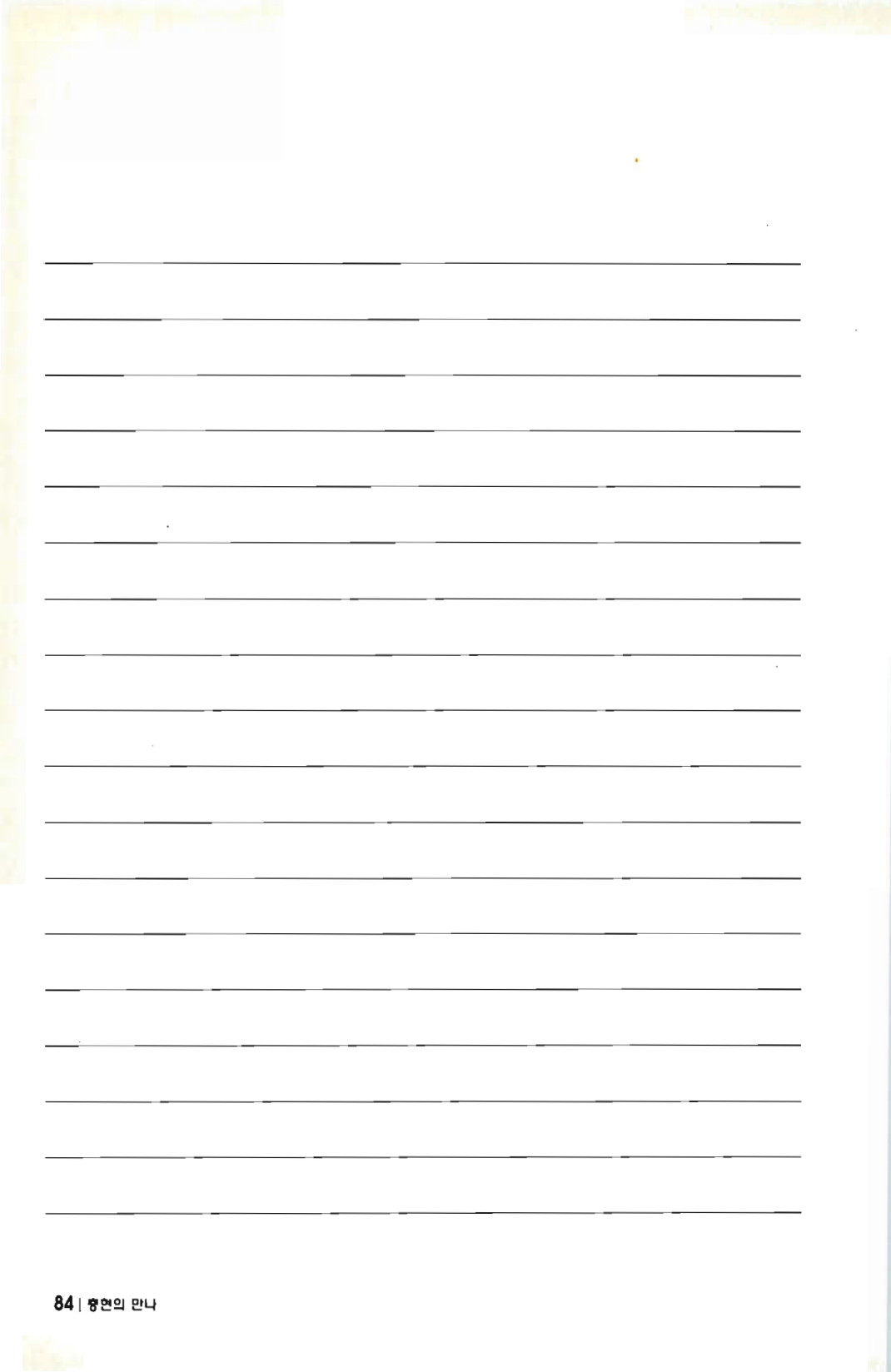
But Nadab and Abihu died before their father did, and they had no sons; so Eleazar and Ithamar served as the priests. (1Chr. 24:2)

• 아비후(10절) :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라가 이 계일에 속했다(눅 1:5).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 ② 여성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2년 7월

Copyright © 2012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웅

집필진 | 박만복 문성수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금]